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25

미 증시,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호실적에 강세

•미 증시는 장중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에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업 실적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 장 시작 전,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은 경기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밝히.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 선호(risk-on)를 강화하도록 만들. 그러나 장 중,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미래투자포럼에서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에 일부 차익 매물도 출회 하였으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국채수익률 안정 속 견고한 흐름 보임. (다우 +0.62%, 나스닥 +0.93%, S&P500 +0.73%, 러셀2000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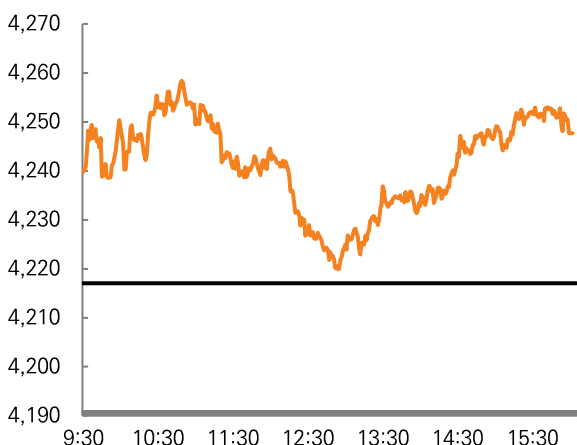
특징 종목: 실적 ↑, 주가 ↑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1.42%)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상승. 유틸리티(+2.57%)는 업종 내 시가총액 비중이 큰 넥스트에라에너지(+6.95%)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견조한 가이던스로 큰 폭 상승하며 업종 강세를 이끌어. 버라이즌(+9.22%)은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고, 스포티파이(+10.35%) 역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수익을 달성하며, 연초이후 116%나 상승. 코카콜라(+2.88%)와 3M(+5.28%)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 상향에 강세. GE(+6.50%)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자 2021년 5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 기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코인베이스(+6.29%), 마이크로스트래티지(+12.55%), 마라톤디지털(+11.54%) 등 강세.

한국 증시 전망: 저가매수

•MSCI 한국 지수 ETF는 1.31%, MSCI 신흥 지수 ETF는 1.2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2.14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0.5~0.8%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중 변동성(고가/저가 차이)은 각각 2.47%p, +4.60%p로 코스피는 지난 1월 4일(2.79%p), 코스닥은 지난 7월 26일(7.93%p)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여. 이는 최근 증시 조정 국면이 깊어지면서, 미수급 및 신용용자 잔고에 대한 반대매매 매물 출회 등 수급 요인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 단기 수급 악화는 일단락됐다고 판단되며, 미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며 저가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기대.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83.51	+1.12	상해종합	2,962.24	+0.78
KOSDAQ	784.86	+2.77	홍콩항셱	16,991.53	-1.05
DOW	33,141.38	+0.62	인도센섹스	64,571.88	-1.26
NASDAQ	13,139.88	+0.93	유로스톡스 50	4,065.37	+0.58
S&P 500	4,247.68	+0.73	영국	7,389.70	+0.20
캐나다	18,986.49	-0.32	독일	14,879.94	+0.54
일본	31,062.35	+0.20	프랑스	6,893.65	+0.63


 변화 요인

① 빅테크 실적 기대 ② 글로벌 PMI

미 증시는 장중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에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 기업 실적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 장 시작 전,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은 경기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밝혀.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 선호(risk-on)를 강화하도록 만들. 그러나 장 중,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미래투자포럼에서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에 일부 차익 매물도 출회 하였으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수익률 안정 속 견고한 흐름 보임.

긍정적 기업실적

장 시작 전,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코카콜라·GE·3M 등 주요 기업들의 ‘서프라이즈’와 향후 전망 상향 조정은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위험 선호(risk-on)를 강화시킴. 실제 이 날 오전 까지 실적 발표를 완료한 116개사(S&P 500의 23%) 중 약 78%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이익을 발표. 이는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 이를 통해 추정된 3분기 이익 증가율은 전년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9월 말 예상했던 1.2% 감소보다는 개선. 이제 시장은 금일 장 마감 후부터 본격화될 Big 5(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및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 이들 기업들은 S&P 500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 시장은 Big 5의 3분기 이익이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에서 들려온 경고

기업들의 긍정적 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미 증시는 사우디 미래 투자포럼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월가 주요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에 장중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음. 특히 Bridewater Associates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내년에)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내년 전망을 ‘비관적’이라고 밝혀. 씨티그룹의 CEO인 프레이저 역시 내년 경제가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밝혀. 블랙록 CEO인 로렌스 핑크는 내년 경제의 경착륙이나 연착륙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연준은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해. JPMorgan Chase 은행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역시 연준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면서, 시장 금리가 25bp 높아지는 것이나 아니라 수익률 곡선 전체가 100bp 높아지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로 인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다고 밝혀.

Eco 리뷰: 미국 ‘Good’, 유로존 ‘Bad’

이 날 S&P가 공개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를 살펴보면, 경제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 우선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전월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유로존은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PMI가 부진하게 나와. 이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키움과 동시에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로 나타나. 여기에 ECB가 발표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는 경제 및 성장 부진에 따른 대출 기준 강화와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호실적=주가 ↑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1.42%)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상승. 유틸리티(+2.57%)는 업종 내 시가총액 비중이 큰 넥스트에라에너지(+6.95%)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견조한 가이던스로 큰 폭 상승하며 업종 강세를 이끌어. 이외 금일 긍정적 실적과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줄이어. 버라이즌(+9.22%)은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고, 스포티파이(+10.35%) 역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수익을 달성하며, 연초이후 116%나 상승. 코카콜라(+2.88%) 강달러의 역풍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고려해 올해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고, 3M(+5.28%)은 부분 구조조정과 지출 통제가 잘 이뤄져 올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전망. GE(+6.50%)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자 2021년 5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 기록. 또한 회사는 내년 2분기까지 항공우주사업부(GE)와 발전사업부(GE Vernova)로 분리할 것이라고 밝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코인베이스(+6.29%), 마이크로스트래티지(+12.55%), 마라톤디지털(+11.54%) 등 강세.

반면 바클레이스(-6.98%)는 3분기 이익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영향으로 큰 폭 하락. 또한 트랜스유니온(-23.30%)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3분기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영향으로 20% 넘게 급락. 주가는 2017년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 이에 에퀴팩스(-5.22%) 역시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유가 ↓, 비트코인 ↑

국제유가는 부진한 유로존 경제지표 영향으로 ‘약한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여기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면서도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의 대규모 석방을 위한 논의로 공습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료 사무총장은 현재 중동 위기가 석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OPEC+는 필요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라크 총리는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생산 비용 계약이 합의되면, 한 달 안에 석유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유가 하방 압력을 키워.

비트코인은 지난 해 4월 이후 처음으로 3만 5000달러를 상회.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세 지속. 미국의 설탕 선물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탄산리튬 가격은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16만 5천위안 아래로 떨어져.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저가매수

MSCI 한국 지수 ETF는 1.31%, MSCI 신흥 지수 ETF는 1.2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2.14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1% 상승. KOSPI는 0.5~0.8%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중 변동성(고가/저가 차이)은 각각 2.47%p, +4.60%p로 코스피는 지난 1월 4일(2.79%p), 코스닥은 지난 7월 26일(7.93%p)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여. 이는 최근 증시 조정 국면이 깊어지면서, 미수금 및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반대매매 매물 출회 등 수급 요인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 단기 수급 악화는 일단락됐다고 판단되며, 미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며 저가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기대.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9	대형 가치주 ETF (IVE)	+0.86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72
소매업체 ETF (XLY)	+1.07	소형 가치주 ETF (IWN)	+0.45
온라인소매 ETF (EBIZ)	+1.71	대형 성장주 ETF (VUG)	+0.86
미국 인프라 ETF (PAVE)	+0.52	중형 성장주 ETF (IWP)	+0.78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1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2.0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5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40	미국 국채 ETF (IEF)	+0.1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58	하이일드 ETF (JNK)	+0.51
바이오섹터 ETF (IBB)	+1.1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78	물가연동채 ETF (TIP)	+0.09
반도체 ETF (SMH)	+1.1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299.72	+2.57	-1.22	-6.82
커뮤니케이션	232.07	+1.38	-0.34	+4.42
부동산	206.01	+1.19	-4.77	-5.18
소재	474.16	+1.13	-4.83	-3.96
경기소비재	1,211.39	+1.04	-4.88	-4.42
필수소비재	715.66	+0.96	-0.09	-3.67
산업재	837.28	+0.72	-4.07	-2.83
IT	2,934.84	+0.71	-2.23	+0.92
금융	534.81	+0.52	-4.62	-4.68
헬스케어	1,486.89	+0.29	-2.57	-2.06
에너지	670.27	-1.42	-3.93	-2.22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3.74	-2.15	-2.10	Dollar Index	106.238	+0.67	-0.01
브렌트유	88.07	-2.04	-2.11	EUR/USD	1.0591	-0.74	+0.13
천연가스	2.97	+1.88	-3.18	USD/JPY	149.92	+0.14	+0.07
금	1,986.10	-0.22	+2.47	GBP/USD	1.2162	-0.71	-0.17
은	23.12	-0.56	+0.24	USD/CHF	0.8931	+0.22	-0.79
알루미늄	2,191.00	+0.69	+0.64	AUD/USD	0.6355	+0.30	-0.16
전기동	8,051.50	+1.00	+1.02	USD/CAD	1.3740	+0.36	+0.67
아연	2,442.50	+0.93	+0.89	USD/RUB	93.6129	-1.00	-4.43
옥수수	484.00	-1.43	-1.18	USD/BRL	4.9944	-0.37	-0.88
밀	580.50	-1.45	+1.45	USD/CNH	7.3127	+0.03	-0.18
대두	1,314.50	+0.57	-0.25	USD/KRW	1,343.10	-0.78	-0.78
커피	168.15	+1.39	+7.07	USD/KRW NDF1M	1,342.14	+0.04	-0.6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19	-3.15	-1.54	스페인	3.938	-2.90	-6.60
한국	4.260	-11.50	+3.50	포르투갈	3.549	-3.30	-6.20
일본	0.851	-2.60	+7.00	그리스	4.256	-3.60	-10.20
독일	2.828	-4.60	-5.40	이탈리아	4.827	-1.30	-6.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